

잠언 31:1-9 번역과 해석에 대한 연구 — מִשָּׁאָה와 דַּרְכָּה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 1)

배재욱*

1. 들어가는 말

필자는 이 논문에서 잠언 31:1-9에서 몇 가지 번역상의 문제점을 찾아 다룰 것이다. 레무엘은 자신의 מִשָּׁאָה(‘맛사’)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가르친 것이라고 말한다. ‘레무엘(לְמוּאֵל)’이라는 이름으로 전승되는 잠언 31장에 לְמוּאֵל이란 이름이 1절과 4절에 두 번 나타난다.

1절에 나타나는 מִשָּׁאָה는 『개역개정』에서 ‘잠언’으로 번역되는데, 이 번역이 정당한 번역인지, 그리고 이 번역에 기대어 31:1-9에 나타나는 מִשָּׁאָה가 실제 생활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찾고자 한다. 그것은 31:1-9는 레무엘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훈계하여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었기에 이것은 인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로 전승된 잠언이라는 의미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 דַּרְכָּה(‘데렉크’)는 ‘길’인데, דַּרְכָּה를 이 논문에서 주제로 삼아 레무엘을 가르친 그의 어머니의 잠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 원리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면, 다원화된 민주 사회에서 개개인이 주인된 의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무엇을 근간(根幹)으로

* Universität Tübingen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영남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 whangung201@hanmail.net.

1) 이 논문은 2018년 9월 15일 평택대학교에서 “신약성서와 구약성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관계”라는 주제로 열린 신·구약 공동학회에서 “잠언 31장 1-9절 번역과 해석에 대한 소고”란 필자의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삼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²⁾ 여기서 대두된 דָּבָרִים를 어떻게 번역할지에 대하여 결정한 뒤에 דָּבָרִים를 중심으로 논문을 엮어 갈 것이다. 먼저 31:1-9에 나타난 ‘왕의 길’이란 소주제로 본문을 분석하고 주석하면서 ‘왕의 길과 정의로운 재판(3-9절)’³⁾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 주제에서 3-7절을 중심으로 먼저 ‘왕의 길이 절제와 공의로운 법 집행’에 있다는 것을 살피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정의로운 재판과 궁핍한 자 신원(伸冤)’에 대하여 8-9절을 중심하여 살필 것이다. 이 단락에서 필자는 왕의 길이 ‘정의로운 재판’(9상)과 ‘궁핍한 자를 신원’(8, 9하)하는 데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제 먼저 31:1-9에 나타나는 몇 가지 번역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2. 31:1-9에 나타난 번역상의 문제

2.1. מִשָּׂא(‘맛사’)의 번역 문제

	דְּבָרֵי לְמוֹאֵל מֶלֶךְ מַסָּא אֲשֶׁר־יִסְרְתּוּ אָמוּ 1절
『개역개정』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표준』	르무엘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
『새번역』	르무엘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
『공동개정』	마싸 왕 르무엘이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교훈.
NAS	The words of King Lemuel, the oracle which his mother taught him.
NIV	The sayings of King Lemuel -- an oracle his mother taught him.
KJV	The words of king Lemuel, the prophecy that his mother taught him.
CEV	These are the sayings that King Lemuel of Massa was taught by his mother.
사역	레무엘 왕에게 한 말씀들, 즉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던 말씀들.

2) 잠언을 지혜문학의 틀 속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는 김정우, “잠언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기독교사상』 53:4 (2009), 22-32; 유성호, “문학으로서의 잠언”, 『기독교사상』 53:4 (2009), 77-86을 보라.

3) 왕과 재판에 관해서는 이동수, “미가서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 『장신논단』 15 (1999), 59-63, 72-73을 보라.

잠언 31:1상반에서 לְמוֹאֵל דְּבַרֵּי(‘디베레 레무엘’)은 דְּבַרֵּי(‘디베레’)가 דְּבַר(‘다바르’)의 연계형 명사이므로 통상 주어적 소유격으로 볼 때 ‘레무엘의 말씀들’로 번역된다. 그런데 연계형 문장인 לְמוֹאֵל דְּבַרֵּי에서 ל(‘라메드’)를 전치사로 보면 ל를 통하여 표현되는 소유격 구조를 가진다.⁴⁾ 이 때 소유격 구조의 문장을 ‘주어적 소유격’(‘레무엘 왕이 한 말씀들’)이 아닌 ‘목적어적 소유격’(‘레무엘 왕에게 한 말씀들’)으로 볼 수 있다. 이때 לְמוֹאֵל מֶלֶךְ דְּבַרֵּי를 ‘레무엘 왕에게 한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31:1하반의 문맥과 일치되고 어울린다.⁵⁾

לְמוֹאֵל דְּבַרֵּי를 ‘목적어적 소유격’이 아닌 주어적 소유격으로 보면 1상반절과 1하반절이 불일치된다. 『개역개정』, 『새번역』 그리고 『표준』은 이런 불일치를 그대로 수용하는 잘못된 번역을 하고 있고 『공동개정』은 “마싸 왕 레무엘이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교훈”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번역은 1상반절과 1하반절의 불일치를 해결하고자 לְמוֹאֵל דְּבַרֵּי를 목적어적 소유격으로 번역하지만 피엘형 동사 יִסְרָתוּ(‘잇서랏투’)를 수동형으로 번역하면서 문장 구조를 잘못 적용하여 잘못된 번역을 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מֶלֶךְ לְמוֹאֵל דְּבַרֵּי은 ‘레무엘 왕에게 한 말씀’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 번역이다.

잠언 31:1하반에 나오는 מִשָּׂא(‘맛사’)를 레무엘이 왕으로 있었던 북 아라비아의 어떤 지역 명칭으로 보는 구약학자들도 있다.⁶⁾ 이렇게 מִשָּׂא를 지명

4) 필자의 이런 논지에 대해 한 평가자는 ל를 전치사로 보면 לְמוֹאֵל의 이름이 ‘레무엘’이 아니라 ‘무엘’이 되어야 하기에 ל를 전치사로 보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는 평가를 했다. 이 중 자음을 표시하는 ‘다게쉬 포르테’가 마소라 텍스트를 완성한 것보다 훨씬 후대에 첨가하였기에 ל를 전치사로 보기도 לְמוֹאֵל의 이름을 ‘레무엘’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타당하다고 본다.

5) 예를 들어 계 1:1의 Ἀποκάλυψ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는 주어적 소유격으로 보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계시”란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목적어적 소유격으로 보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계 1:1은 주어적 소유격과 목적어적 소유격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잠 31:1의 לְמוֹאֵל דְּבַרֵּי은 주어적 소유격이기 보다는 목적어적 소유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מִשָּׂא אֲשֶׁר-יִסְרָתוּ אָמוֹ와 문장 구조상 맞다고 본다. 그것은 לְמוֹאֵל דְּבַרֵּי를 주어적 소유격으로 볼 때 그 근거가 르무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뒤 문장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곤란하다.

6) 롤랜드 E. 머피, 『잠언』, 박문재 역, WBC 성경주석 22 (서울: 솔로몬, 2008), 368, 385를 보라. 만약 그들처럼 북 아라비아 어떤 지방의 이름이 맛사이고 레무엘이 그 맛사의 왕이라고 가정한다면 잠 31장 해석에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레무엘이 아라비아 반도의 맛사 왕이라는 것도 하나의 가정이다. 왜 북 아라비아 왕의 잠언을 성서 편집자들이 받아들였나? 그들이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민족인가? 당시 그들보다 더 서진한 지역에 살며, 성경이 가르친 바와 아주 유사한 잠언도 많았을 텐데, 왜 그것들은 잠언으로 채택하지 않았나? 이런 해석에 대한 시도들은 레무엘을 실재한 인물로 보는 관점에서 보는 측면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그

으로 보면 1절의 מֶלֶךְ לְמוֹאֵל דְּבָרֵי לְמוֹאֵל מַסָּא(‘디베레 레무엘 멜렉크 맛사’)는 “맛사의 왕 레무엘의 말씀”으로 번역하게 된다.⁷⁾ 그러면 1절은 1상반절인 דְּבָרֵי מֶלֶךְ לְמוֹאֵל과 1하반절인 אִמּוֹ אֲשֶׁר-יִסְרְתּוּ אִמּוֹ מַסָּא로 분리되어 두 절이 동격절로 분류된다. 그래서 אִמּוֹ אֲשֶׁר-יִסְרְתּוּ אִמּוֹ(‘아쉬르 잇서랏투 임모’)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던”으로 번역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참조. ELB 잠 31:1).⁸⁾ 『공동개정』과 CEV는 מַסָּא를 지명으로 본다. מַסָּא를 지명으로 본다면 לְמוֹאֵל מֶלֶךְ מַסָּא를 ‘맛사의 왕 레무엘’(King Lemuel of Massa, CEV)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מַסָּא를 지명으로 번역할 때 마소라 학자들이 1절을 דְּבָרֵי מֶלֶךְ לְמוֹאֵל מַסָּא אֲשֶׁר-יִסְרְתּוּ אִמּוֹ라는 문장으로 편집한 의도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1절에서 ‘아트나흐(athnach)’를 מֶלֶךְ 밑에 두어(즉, מֶלֶךְ מַסָּא와 מֶלֶךְ 사이를 분리시킨다.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성경 마소라 본문이 1절을 אֲשֶׁר יִסְרְתּוּ 사이에 ‘마케프(Maqqeph, מִקֵּף)’를 표시하여 한 단어를 만들어 מַסָּא와 관련시키는 것을 볼 때 מֶלֶךְ מַסָּא를 ‘맛사 왕’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מֶלֶךְ 밑에 둔 ‘아트나흐’(מֶלֶךְ)와 אֲשֶׁר(‘아쉬르’)와 יִסְרְתּוּ(‘잇서랏투’) 사이에 있는 ‘마케프’란 부호를 간과(看過)하는 번역이다. 마소라 학자들은 ‘아트나흐’와 ‘마케프’를 사용하여 אִמּוֹ אֲשֶׁר-יִסְרְתּוּ אִמּוֹ와 깊은 관련 속에 두면서 동시에 מֶלֶךְ과 מַסָּא 사이를 분리시키는 문장 구조로 만든 것을 보면 마소라 학자들은 일찍부터 מַסָּא(‘맛사’)를 1상반절에 따르는 ‘맛사’란 지명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1하반절의 초두에 놓여진 문장 구성요소로 이해하여 그렇게 배치했다.

그러면 이제 מַסָּא를 ‘잠언’(箴言)으로 이해하고 번역해야 할지 아니면 다

가 실제 인물이고 이방인이라야 한다면 이스라엘화 된 이방인 ‘우리아’(참조. 삼하 11:1-12:15)와 같은 인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 레무엘을 이방인으로 가정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 만약 그가 이방인이라면 “솔로몬의 잠언”(잠 1:1)이라는 표제어 아래 이방인의 잠언을 어떻게 받아들여 그것을 집대성하여 이스라엘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전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방 땅 ‘맛사’의 왕인 ‘레무엘’의 잠언을 수집하고 그것을 잠언으로 편집한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그것이 합당한 전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레무엘이 이방인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에 편입된 이스라엘 왕일 수도 있다고 본다. 문제는 잠언에 레무엘의 잠언이 편입되었다는 것은 레무엘의 잠언에 나타나는 교훈을 이스라엘 민족의 교훈으로 삼았다는 데 있으므로 ‘레무엘’을 이방인으로 보는 것은 제고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가 매우 열악했다. 그런데 레무엘의 잠언에 나타나는 어머니는 그 아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그의 아들을 가르쳤다는 점에서 특이한 위치에 있다.

7) Ibid., 385.

8) Ibid., 385를 보라.

른 말로 번역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글 성경에서 『표준』과 『새번역』은 אָמַרְתָּ를 ‘잠언’으로 번역한다.⁹⁾ 그리고 NIV와 NAS는 אָמַרְתָּ(‘맞사’)를 ‘신탁’(‘oracle’)으로 번역하고 KJV는 ‘예언’(‘prophecy’)으로 번역한다. 그런데 ‘잠언’이란 말을 한국어 사전은 “가르쳐서 훈계되는 말” 또는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란 뜻으로 해석한다.¹⁰⁾ 잠언 1:1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אִמְרוֹת שְׁלֹמֹה בְּנֵי דָוִד מֶלֶךְ יִשְׂרָאֵל)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 나오는 ‘잠언’이란 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מִשְׁלֵי(‘미של레’)는 מִשְׁלָּ(‘마살’)이란 히브리어 남성명사의 연계형이다. 그런데 מִשְׁלָּ(‘마살’)을 히브리어 사전은 “잠언, 특수한 표현 혹은 발생했던 특정한 사건의 풍자로서 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공감을 얻어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는 말”로 해석한다.¹¹⁾ 게제니우스(Heinrich Friedrich Wilhelm Gesenius)는 מִשְׁלָּ에 이러한 해석과 함께 ‘말씀’(‘saying’), ‘속담’(‘proverb’, 삼상 10:12), 비유, 우화(겔 17:2; 21:5; 24:3) 또는 ‘지혜로운 말씀’(‘wisdom saying’), “격언, 잠언과 짧고 간단해서 쉽게 읽혀지고 많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말(왕상 4:32[5:12]; 잠 1:1, 6; 19:1; 25:1; 26:7, 9)”이란 의미로 해석한다.¹²⁾

한글 번역 성경은 אָמַרְתָּ를 대체로 ‘잠언’으로 번역한다. 그리고 영어 번역본은 최근의 번역에서 אָמַרְתָּ를 ‘잠언’으로 번역하지 않고 ‘신탁’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NAS는 אָמַרְתָּ를 ‘그 신탁’(‘the oracle’)으로, NIV는 ‘신탁’(‘an oracle’)으로 번역하고, KJV는 ‘그 예언’(‘the prophecy’)으로 번역한다. 그리고 『개역개정』은 אָמַרְתָּ를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란 뜻을 가진 ‘잠언’으로 번역한다. 그렇게 ‘신탁’(‘oracle’)이나 ‘예언’(‘prophecy’) 또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란 뜻을 가진 ‘잠언’이란 말로 번역할 때 이 본문이 성경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 되고 ‘잠언’이란 말은 한국 신자들에게 익숙한 말이기도 하다. 한국어 성경에 사용되는 ‘잠언’이란 말이 한국어로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¹³⁾ 또는 “가르쳐서 훈계가 되

9) 그런데 『공동』과 『공동개정』은 אָמַרְתָּ를 ‘마싸’란 지명으로 언급한다.

10)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서울: 민중서림, 1990), 3212;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편, 『동아 새국어사전』, 제5판(서울: 두산동아, 2004), 1972.

11) Heinrich Friedrich Wilhelm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17. Aufl., (Berlin, Heidelberg [u.a.]: Springer, 1962), 470.

12) Heinrich Friedrich Wilhelm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470. 김정우는 김정우, “잠언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31에서 잠언의 지혜를 “우리의 믿음과 품성을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창조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으로 보았다.

13) 한글학회, 『우리말 사전』(서울: 어문각, 2008), 1923.

는 깨우치는 말” 그리고 “경계 말”¹⁴⁾로 해석되므로 מִשָּׁא를 ‘잠언’으로 번역할 때 잠언 31:31이 가지는 위대한 의미를 바르게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מִשָּׁא를 잠언으로 번역하면 ‘잠언’에 해당되는 단어인 מִשָּׁל(‘마살’)이 있는데 잠언 편집자가 מִשָּׁל(‘마살’)을 두고 מִשָּׁא를 이 구절에 왜 가져 왔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잠언 31:1 이외에 다른 구약성경에서 מִשָּׁא를 ‘잠언’으로 번역한 예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게제니우스는 מִשָּׁא를 ‘말씀’, ‘인도’, ‘예언’, ‘판결’ 등으로 해석하면서 잠언 31:1에 나오는 מִשָּׁא를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말씀”으로 해석한다.¹⁵⁾ 그런데 מִשָּׁ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된 예가 특별히 열왕기하 9:25에 나타난다. מִשָּׁא가 예레미야애가에서는 ‘예언’이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사 13:1; 애 2:14). 하지만 מִשָּׁא가 ‘잠언’이란 말로 번역된 예가 잠언 이외에 어느 구약성경에도 없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מִשָּׁא를 ‘잠언’으로 번역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에 따른 오류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잠언 31:1에서 מִשָּׁא를 ‘잠언’이 아닌 다른 말과 관련하여 번역하고자 한다. 31:1에서 מִשָּׁא(‘맛사’)를 ‘신탁’(‘oracle’)이나 ‘예언’(‘prophecy’)으로 번역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번역보다는 31:1상반절의 מִלְּךָ לְמוֹאֵל דְּבָרֵי와 연관시켜 ‘의미의 평행’을 유지하는 구조로 보아야 마땅하다. 1하반절에서 ‘말씀’이란 의미를 가지는 ‘디베레(דְּבָרֵי)’와의 관련에서 볼 때 מִשָּׁא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더 잘 어울린다. 즉 מִשָּׁא를 ‘말씀’으로 번역하는 것이 31:1상반절과 1하반절의 평행 구조에서 볼 때 가장 적당한 번역어인 것 같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볼 때 לְמוֹאֵל דְּבָרֵי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던 교훈, 즉 ‘말씀’이다. 즉 22:17에 나오는 דְּבָרֵי חֲכָמִים와(‘디베레 하카뎀’,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들’)이 מִלְּךָ לְמוֹאֵל דְּבָרֵי와의 관련에서 מִשָּׁא(‘맛사’)를 이해하여 ‘말씀’으로 번역하는 것이 이 구절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는 데 구조상으로 더 잘 어울린다. 이런 탐구를 통하여 볼 때 מִשָּׁא는 ‘말씀’으로 번역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래서 필자는 잠언 22:17에 나오는 דְּבָרֵי חֲכָמִים(‘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들,’ die Worte von Weisen)이란 관점에서 그리고 מִשָּׁל(‘마살’)과의 관련 속에서 מִשָּׁא를 ‘말씀’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14) 국어국문학회, 『(새로나온) 국어대사전』 (서울: 民衆書館, 2001), 2096.

15) Heinrich Friedrich Wilhelm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464.

2.2 דִּרְכֶיךָ(‘데라케카’)의 번역 문제

אַל-תִּתֵּן לְנָשִׁים חֵילֶךָ 3절

וּדְרָכֶיךָ לְמַחֹת מְלָכִין

『개역개정』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표준』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공동개정』	네 기력을 여자에게 쏟지 마라. 임금도 그리 되면 망한다.
NIV	do not spend your strength on women, your vigor on those who ruin kings.
KJV	Give not thy strength unto women, nor thy ways to that which destroyeth kings.
사역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쏟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길들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주지도 말아라.

3절에 관한 위의 번역본들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3하반절의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 דִּרְכֶיךָ(‘데라케카’)란 말이 나온다. דִּרְכֶיךָ의 원형인 히브리어 דֶרֶךְ는 ‘길’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이 דֶרֶךְ를 NIV는 ‘vigor’(‘힘,’ ‘활력’)으로 번역하고 머피(Roland E. Murphy)는 ‘power’(‘힘’)¹⁶로 번역한다. 그러나 KJV, NAS, NRS나 ELB(Revidierte Elberfelder Bibel [1993])는 ‘길’로 이해하여 דִּרְכֶיךָ(‘데라케카’)를 ‘너의 길들’로 번역한다.

3절을 머피는 “Do not give your strength to women or your power to those who destroy kings”(“너의 기운을 여자에게 주지 말라 또한 너의 힘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주지 말라”)라고 번역하여 דֶרֶךְ를 ‘힘’(‘power’)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NAS는 “Do not give your strength to women, Or your ways to that which destroys kings”(“너의 힘을 여자에게 주지 말라, 또는 너의 길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주지 말라”)로 번역하고 ELB는 “Gib nicht den Frauen deine Kraft, noch deine Wege denen, die Könige auslöschen”(“너의 힘을 여자에게 주지 말라, 또한 너의 길들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주지 말라”)으로 번역하여 דֶרֶךְ를 ‘길’로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머피는 מָחָה(‘마하’)란 동사의 부정사 연계형인 מַחֹת(‘머호트’)가

16) 롤랜드 E. 머피, 『잠언』, 385. Ibid., 386에서 머피(Roland E. Murphy)는 דִּרְכֶיךָ가 “통상적으로 ‘너의 길들’을 의미”한다고 보면서 “이 어구는 ‘왕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너의 길들을 이끌지 말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

הַמֶּלֶךְ란 동사의 여성 복수 분사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⁷⁾ 그러면서 그는 3상반절의 הַמֶּלֶךְ(‘나침’)이란 여성명사 복수형과 ‘왕들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서로 평행된다고 보면서 3하반절의 הַמֶּלֶךְ, 즉 ‘여자들’이 ‘왕들을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본다.¹⁸⁾ 만약 머피의 주장이 맞다면 3절은 הַמֶּלֶךְ(‘헬렉카’)와 הַמֶּלֶךְ가 평행을 이루는 구조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머피는 “우가릿어 *drk*의 의미를 기초로 하여 הַמֶּלֶךְ를 ‘힘’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¹⁹⁾고 본다. 만약 머피의 주장대로 3상반절과 3하반절이 평행되는 구조로 구성되었다면 3절의 히브리어 문장 구조에서 보면 3상반절과 3하반절은 전체적으로 평행절이지만 교차대구법을 이루면서 평행을 이룬다는 점에서 특이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즉 3상반절과 3하반절이 교차 대구법의 구조를 이루면서 레무엘에게 여자로 인한 유혹에 빠져 들지 말 것에 대한 강한 경고를 나타낸다.

『개역개정』은 3하반절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라고 번역하여 3상반절(“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과 3하반절(“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이 문맥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구조로 번역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개역개정』처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장으로 3절을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네 힘을 여자들에게 허비하지 말고 네 기력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쏟지 마라”고 번역한 우리말 역본처럼 번역하면 3절이 ‘레무엘 왕이 여자에게 빠져 스스로 멸망으로 가는 것’을 경계하는 말인지, 아니면 레무엘의 군대가 강하여 타국(他國)을 침략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타국의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 어머니가 교훈하는 말인지 그 의미가 애매모호해진다.

만약 הַמֶּלֶךְ를 NRS나 ELB처럼 ‘멸망시키는 자들’이라고 번역한다면 3하반절의 הַמֶּלֶךְ가 3상반절에 나오는 הַמֶּלֶךְ(‘나침’, ‘여자’)과 평행구를 이루고 이 평행구 속에서 הַמֶּלֶךְ과 הַמֶּלֶךְ가 교차대구로 배치되어 3절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잠언 저자가 교차대구법으로 문장을 배치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을 더욱 강화하고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²⁰⁾

17) Ibid., 386을 보라.

18) Ibid., 386을 보라.

19) Ibid., 386.

20) 3절은 ‘여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만, 잠 31:10-31에 나타나는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되는 הַמֶּלֶךְ(‘에셋 하일’)에 대한 여인상은 이상적인 모습으로 묘사된다.

הַמֶּלֶךְ에 대해서는 김유기, “잠언 31장 10절 <에셋 하일>의 의미”, 『장신논단』 40 (2011.4.), 119-141; 민영진, “현숙(賢淑)한 아내나, 유능(有能)한 아내나: 잠언 31:10-31”, 『설교자를 위한 성경연구』 6:10 (2000), 42-59; 김기동, “에셋 하일 : 유능한 여인!”, 『한국여성신학』 59 (2004.12.), 60-70; 김희석, “잠언 31장 1-9절의 해석학적 기능 - 레무엘 왕(잠31:1-9)

만약 דָּרַךְ가 NRS나 ELB 번역본에서 제시하듯 ‘길’로 이해된다면 레무엘의 어머니는 그가 왕으로 통치하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대하여 말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דָּרַךְ를 무리하게 ‘우가릿어 drk의 의미’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보다²¹⁾ ‘길’이란 일반 명사로 보아서 레무엘 왕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נִמְנָם, 즉 ‘멸망시키는 자들’로부터 ‘자신의 길’을 지키도록 교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²²⁾

그래서 3절을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그리고 너의 길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자들’(여성형 복수 명사)’에게 너의 길들을 주지 말지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3절에서 3상반절의 נְשִׂים과 ‘멸망시키는 자들’을 뜻하는 3하반절의 נִמְנָם는 서로 평행을 이루면서 ‘여자들’과 ‘왕들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동일한 인물임을 나타낸다. 『표준』은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고 번역함으로써 3상반절의 נְשִׂים과 3하반절의 נִמְנָם를 사용하여 두 문장의 조화를 택한다. 그렇게 번역하면 ‘여자’가 왕을 멸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서술된다는 점에서 그런 번역은 독자의 해석의 여지를 좁게 만드는 좋지 않은 번역이라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3절을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쏟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길들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주지도 말아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 번역이라고 본다.

3. 31:1-9에 나타난 왕의 ‘길’(דָּרַךְ)

3.1. 레무엘 잠언의 도입부 (1-2절)

1절 דְּבָרֵי לְמוֹאֵל מֶלֶךְ מִשָּׂא אֲשֶׁר־יִסְרְתּוּ אִמּוֹ
2절 מִה־בְּרִי וּמִה־בְּר־בִּטְנִי וּמִה־בְּר־נְדָרֵי

구약성경에서 ‘레무엘(לְמוֹאֵל)’이라는 이름은 잠언 31:1, 4에만 나오는 생소한 이름이다. 머피는 ‘레무엘(לְמוֹאֵל)’이라는 이름의 제일 앞 철자인 ‘라메

과 현숙과 여인(잠31:10-31)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35 (2012), 232-260을 참조하라. 김유기는 לְמוֹאֵל를 “현숙한 여인’보다는 ‘유능한 아내’가 좀 더 본문의 의미에 부합하는 번역이다”라고 했다. 여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배재욱, “요한복음에 나오는 γύναι에 대한 소고: 예수는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을까?”, 『신약논단』 9:3 (2002), 779-786; 배재욱, “신약성경이 말하는 혼인”, 『장신논단』 19 (2003), 423-446을 보라.

21) 롤랜드 E. 머피, 『잠언』, 386을 보라.

22) Ibid., 386과 비교하라.

드(ל)가 ‘소유격을 나타내거나 레무엘 왕의 어머니가 가르친 동작의 간접 목적어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²³⁾ 그러면 דְּבָרֵי לְמוֹאֵל מֶלֶךְ(‘디베레 레무엘 멜렉크’, ‘레무엘 왕에게 한 말씀들’)와 מִשָּׂא אִשְׁרַיִטּוּ אִמּוֹ(‘맛사 아쉬르 잇서랏투 임모’,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던 말씀들’)는 서로 동격을 이룬다. 즉 이 구절에서 דְּבָרֵי לְמוֹאֵל מֶלֶךְ(‘디베레 레무엘 멜렉크’)는 레무엘에게 기원을 두는 말이 되고 מִשָּׂא אִשְׁרַיִטּוּ אִמּוֹ(‘아쉬르 잇서랏투 임모’)를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던’으로 번역하면 그 말씀이 레무엘의 어머니에게 기원을 두는 말이 된다. 즉 דְּבָרֵי לְמוֹאֵל מֶלֶךְ(‘디베레 레무엘 멜렉크’)는 ‘레무엘 왕에게 한 말씀들’이고 מִשָּׂא אִשְׁרַיִטּוּ אִמּוֹ(‘맛사 아쉬르 잇서랏투 임모’)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던 말씀들’이 된다. 한국어 번역본은 “레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고 번역한다. 이 번역에 따르면 레무엘 왕이 말하는 잠언은 그에게서 기원된 잠언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친 잠언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דְּבָרֵי מֶלֶךְ לְמוֹאֵל와 אִמּוֹ אִשְׁרַיִטּוּ로 분리되어 “레무엘 왕에게 한 말씀들”과 “그것으로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던 말씀들”로 번역할 수 있어 1절 דְּבָרֵי אִמּוֹ מִשָּׂא אִשְׁרַיִטּוּ לְמוֹאֵל מֶלֶךְ를 “레무엘 왕에게 한 말씀들, 즉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던 말씀들”로 번역할 수 있다.

이 잠언의 기원을 레무엘의 어머니로 보아야 하는가? 만약 레무엘이 실제 인물이었다면 이방인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화된 우리아(참조. 삼하 11장) 같은 인물일 수 있다. 문제는 잠언에 레무엘의 잠언이 들어 왔다는 것은 잠언 편집자가 레무엘의 잠언을 이스라엘의 교훈으로 삼았다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잠언 31:1에서 “레무엘 왕에게 한 말씀들, 즉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던 말씀들”이라는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을 수 있다. 2절은 레무엘의 어머니가 왕인 레무엘을 교훈한 내용이다. 즉 레무엘 왕이 남긴 잠언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친 교훈이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가르친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남자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그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관점에서 잠언 31장은 독특한 내용이고 또 그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실제적이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이 잠언에서 레무엘의 어머니는 왕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입장에 있다. 이런 점에서 잠언 31장은 연구자들에게 많은 연구 대상이 되었다.

잠언이 가르치는 상징성과 중요성은 현대 한국 교회 안에서도 좋은 교훈이 된다. 그 실례를 3-9절에서도 볼 수 있다.

23) 이것에 대해서는 Ibid., 386을 보라.

3.2. 왕의 ‘길’(דָרֶךְ)과 정의로운 재판(3-9절)

잠언 31:3-9는 금지 명령과 재판에 대한 경고가 나온다. 이 단락을 분석하면 아들의 인생에 해가 될 수 있는 무익한 것에 대한 경고를 3-7절에서 볼 수 있다. 3-7절에서 레무엘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에게 부도덕과 정사를 돌보는 일에 게을리 하는 것과 폭음(暴飲)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8-9절에는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한 충고가 나타난다. 그것은 왕으로서 반드시 할 일인 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시행해야 될 것에 대한 교훈이다. 왕정 시대에 최고의 재판권은 왕에게 있었고 왕은 공정한 재판을 행사함으로써 정의로운 통치를 이룰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 단락(3-9절)에는 금지 명령에 나타난 지혜(3-7절)와 지혜로운 재판에 대한 권고(8-9절)가 나타난다. 이 문장 구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1. 금지 명령에 나타난 지혜(3-7절)
 - 1) 성적인 방종에 대한 경고(3절)
 - 2) 술을 남용하지 말라는 경고(4-7절)
2. 정의로운 재판에 대한 권고(8-9절)

3.2.1. 절제와 공의로운 법집행(3-7절)

(1) 성적인 방종에 대한 경고(3절)

3절 אֵל-תֵּתֶן לְנָשִׁים חֵילָהּ וְדַרְכֵיהָ לְמַחֹת מְלָכִין

3절에서 ‘여자들’이란 말로 사용된 נָשִׁים을 ‘아내들’로 번역해도 그것이 틀린 번역은 아니다. 그렇지만 3절에서 נָשִׁים이 ‘아내들’로 번역될 수 있지만 더 넓은 뜻을 가지는 ‘여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²⁴⁾

그러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이 3절을 무엇에 대한 교훈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이 구절은 레무엘 왕에게 준 그의 어머니의 교훈이지만, 모든 자들에게 의미있는 교훈이라고 본다. 3절에 나타나는 דַרְכֵיהָ를 ‘너의 길들’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런데 ‘길’(דָרֶךְ)이란 의미가 ‘왕의 도리’와도 관련되므로 3절은 ‘술 남용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 4-7절 그리고 ‘정의로운 재판’과 ‘궁핍한 자 신원’을 말하는 8-9절과 연결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4) 이것에 대해서는 Ibid., 388을 보라.

(2) 술 남용에 대한 경고(4-7절)

4절 אֵל לְמַלְכִים לְמוֹאֵל אֵל לְמַלְכִים שְׁתוּיִן וּלְרוֹזְנִים (או) [א] שָׁכַר

5절 פְּוִישָׁתָה וַיִּשְׁכַּח מְחַקֵּק וַיִּשְׁנָה דִין כָּל-בְּנֵי-עַמִּי

6절 תַּנּוּ-שָׁכַר לְאוֹבֵד וַיִּין לְמָרִי נַפְשׁ

7절 יִשְׁתָּה וַיִּשְׁכַּח רִישׁוֹ וַעֲמָלוֹ לֹא יִזְכַּר-עוֹד

3절에서 ‘성적인 방종에 대한 경고’는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으로 나오지만, 4절에 ‘술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는 직설법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절의 금지 명령은 명령법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대신 술을 남용하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하는 내용을 말한 후 왜 마땅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5절에서 말한다. 이 문장은 명령문 형태로 나오지 않지만, 금지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술에 대한 처리를 지시한다. 그런 후 7절에서는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한다.

5절은 술이 가져오는 해악을 지적한다. 평범한 사람의 실수나 잘못은 개인이나 그 가족에게 국한되지만, 지도자의 실수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5절에서 술을 금하는 이유가 왕의 직무와 관련된다. 즉 이 구절에서 왕의 직위가 재판과 관련되기에 왕은 술을 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왕의 직무인 재판을 통하여 세상에 정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왕이 술을 금해야 한다면 5절에 나타난 ‘송사’는 재판과 관련된다. 재판은 왕이 해야 할 중요한 직무이다. 그런데 왕의 ‘길,’ 즉 ‘직무’로서의 ‘재판’은 ‘공의롭게’ 그리고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재판이 정의로운 재판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바르게 성취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되면 왕이 바른 ‘길’(דָרֶךְ)을 걷지 못하고 자신에게 위임된 지도력을 잃게 될 것이다.²⁵⁾

레무엘의 어머니는 왕인 그의 아들에게 사람을 흥분시키는 술을 먹지 말도록 금하고 있다(참조. 잠 31:4-7). 술에 대한 경고가 지혜의 가르침 가운데에 거듭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참조. 잠 20:1; 23:31-35). 물론 술이 인간에게 유익한 면도 있다. 6-7절은 술이 가지는 긍정적인 면을 나타낸다. 그러나 6-7절은 술을 권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 언급은 고대에서 의학적인 의도로 술을 사용한 것을 가리킨다. ‘독주는 죽어가는 사람에게나 주어라’와 ‘포도주는 상심한 사람에게 주어라’는 언급에서 독자들은 이 구절이 말하

25) 지도력에 대해서는 배재욱, 『성경에서 배우는 최고의 지도력: 섬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을 보라.

는 의도를 볼 수 있다. 레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교훈하는 이 구절에서 절제에 대한 교훈을 보게 된다. 왕에게는 버려야 할 것이 죽어가는 어떤 자들에게는 고통을 잊게 하는 약이 될 수 있고, 영혼의 양식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영약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일에 너무 지나치게 되면 과하여 탈이나지만, 지나치지 않고 적절하게 하고 절제할 때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이 된다.

3.2.2. 정의로운 재판과 궁핍한 자 신원(伸冤)(8-9절)

(1) 정의로운 재판(9상)

וְיִשְׁפֹּט בְּיָמֶיךָ וְיִשְׁפֹּט בְּיָמֶיךָ 9절

31:8-9는 힘든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는 교훈이다.²⁶⁾ 잠언 31:8-9에서 왕에게 요구되는 지혜와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적시하는 기준을 시편 72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있고 1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는 시구(詩句)로 시작한다. 그 후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로 행해야 할 바가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2절)라는 말로 왕이 반드시 행하고 지켜야 할 것으로 적시된다.

잠언 31:8에서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는 언급이 나타난다. 왕의 도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변호해 주는 것임을 말한다. 왕은 늘 어려운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왕의 책무는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왕은 국민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해야 된다.

26) 이런 잠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사회학적 관점에서 가난한 자들의 입장으로 잠언을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Burton L. Mack, *Wisdom and the Hebrew Epic: Ben Sira's Hymn in Praise of the Fathe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85); Christl M. Maier, *Die "Fremde Frau," Proverbien 1-9: Eine Exegetische und Sozialgeschichtliche Studie*, OBO 144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Alan Moss, "Wisdom as Parental Teaching in Proverbs 1-9", *HeyJ* 38:4 (1997), 426-439; Harold C. Washington, "The Strange Woman זרה/נכריה אשה of Proverbs 1-9", T. C. Eskenazi and K. H. Richards, eds., *Second Temple Studies 2: Temple and Community in the Persian Period*, JSOTSup 175 (Sheffield: JSOT Press, 1994), 217-242; Matt Wiebe, "The Wisdom in Proverbs: An Integrated Reading of the Book",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heffield, 1992); Joseph Blenkinsopp, "The Social Context of the 'Outsider Woman' in Proverbs 1-9", *Biblica* 72 (1991), 457-473을 참조하라.

(2) 공평한 자 신원(8, 9하)

פְּתַח־פִּיךָ לְאֵלִים אֲלֵדִין כְּלִבִּי הַלֹּחַ 8절

פְּתַח־פִּיךָ שְׁפֹט־צָדִק וְדִין עָנִי וְאֲבִיוֹן 9절

구약성경에서 צָדִק(‘체택’)은 ‘공의’로 번역되고 מִשְׁפָּט(‘미쉬파트’)는 ‘정의’란 말로 번역된다. 이처럼 구약성경은 צָדִק과 מִשְׁפָּט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적용한다.²⁷⁾ צָדִק과 מִשְׁפָּט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사 1:21, 27; 5:7, 16; 9:7; 28:17; 32:16; 33:5; 호 2:19[21]; 암 5:7, 24; 6:21).²⁸⁾

이동수는 구약성경에서 ‘공의’로 번역되는 צָדִק(119번)과 חָקָה(‘처다카’, 157번)의 합계가 276번 그리고 ‘정의’로 번역되는 מִשְׁפָּט가 구약성경에 424번 사용됨을 밝혔다.²⁹⁾ ‘공의’로 번역되는 צָדִק과 חָקָ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어 조건이 성취될 때 사용되는 말이다.³⁰⁾ 미가는 הָיָה צְדָקוֹת יְהוָה(‘치더코트 야웨’, ‘여호와와 공의’, 사 5:11; 삼상 12:7)를 사용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 행위’를 나타낸다(참조. 미 6:5). 구약성경에서 צָדִק과 חָקָה는 ‘이스라엘 국민’과 ‘힘없는 자’와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나타난다.³¹⁾ 어떤 사람이 이런 관계 조건에 부합될 때 공평한 판결로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면 재판관은 공의로운 일을 행한 것이다.³²⁾

מִשְׁפָּט는 일반적으로 ‘정의’로 번역된다. 이 מִשְׁפָּט는 동사형인 ‘재판하다’란 말의 히브리어 שָׁפַט(‘샤파트’)에서 파생된 말로 ‘재판’ 그리고 ‘정의’ 또는 ‘올바른 것’ 등으로 번역된다. ‘미쉬파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세우신 법도와 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법적인 의미로 제한되지 않는다.³³⁾

27) 이것에 대해서는 이동수, “미가서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 56-73을 보라.

28) Abraham Even-Shoshan, ed., *A New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Using the Hebrew and Aramaic Text* (Jerusalem: Kiryat-Sefer, 1990), 722-725, 977-978을 참조하라.

29) 이동수, “미가서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 57-58.

30) Bruce V. Malchow, *Social Justice in the Hebrew Bible*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6), 16.

31) J. J. Scullion, “Righteousness (OT),” *ABD* V (1992), 725-726. 구약성경에서 ‘체택’과 ‘처다카’를 사용한 용례와 의미에 대해서 이동수, “미가서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 57-58을 보라. 시 72:2에서는 차이 없이 ‘체택’과 ‘처다카’가 사용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동수, “미가서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 58과 각 주 9번을 참조하라.

32) Bruce V. Malchow, *Social Justice in the Hebrew Bible*, 16을 보라.

33) Abraham Even-Shoshan, ed., *A New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722-725. 그리고 LXX에서의 δικαιοσύνη에 대해서는 Gottlob Schrenk, “δικαιοσύνη: B. Die Gerechtigkeit in LXX,” *ThWNT* II (1935), 197-198을 참조하라.

잠언 31:5에 나타나는 פִּינִי(‘땀’)이 『개역한글』에는 ‘공의’로 번역되는데 이 번역은 올바른 번역이 아니다. 그러나 פִּינִי를 8절에서는 ‘송사’(‘lawsuit’, ‘소송’, ‘고소’)라고 바르게 번역한다. 『개역개정』은 5절과 8절을 ‘송사’라고 번역하고 『공동』은 5절에서 פִּינִי를 ‘권리’ 그리고 『표준』은 ‘판결’로 번역하지만 8절에 나오는 פִּינִי는 『개역개정』, 『공동』과 『표준』에서 모두 ‘송사’로 번역된다. 독일어 성경 ELB는 5절과 8절에서 פִּינִי를 ‘송사’ (‘Rechtsanspruch’)로, 영어번역본 NRS는 ‘권리’ 또는 ‘정의’(‘rights’)로 번역한다. 9절에 나타나는 פִּתְּוֹתַי(‘세 파트 체택’)을 『개역개정』은 ‘공의로 재판하여’라고 번역하는데, LXX는 κρίνε δίκαιως(‘크리네 디카이오스’, ‘의롭게 재판하라’)라고 번역하고 ELB는 ‘올바르게 재판하라’(‘richte gerecht’), NRS는 ‘정의를 방어해라’(‘defend the rights’)라고 번역한다.

פִּתְּוֹתַי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 즉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해 왕이 행해야 할 정의로운 재판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⁴⁾ 그런 점에서 보면 구약성경에서 보편적으로 פִּתְּוֹתַי를 관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공의’로 번역할 수 있지만, 잠언 31:9에 나타나는 פִּתְּוֹתַי를 ‘공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재판’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정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옳은 해석이다. 그래서 필자는 9절에서 פִּתְּוֹתַי를 ‘정의’라고 번역하여 그것을 왕의 중요한 직무인 재판과 관련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9절에서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고 했다. 이 말은 ‘입을 열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세워 주어라’는 말이다. 이사야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וְהָיָה מְעֵשֶׂה הַצְדָקָה שְׁלוֹמִים, 사 32:17상)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וְעֵבֶרְתָּ הַצְדָקָה הַשְׁקֵט וְהַבְטָח עַד-עוֹלָם, 사 32:17하)고 했다. 이사야는 이 구절을 정의가 평화를 선도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중 구조로 배치하고 있다. 이 구조 속에서 정의와 평화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의가 없으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레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루어야 마땅한 인물임을 깨우친다.³⁵⁾ 잠언 31:8-9에 나타나는 정의는 ‘공

34) 롤랜드 E. 머피, 『잠언』, 368, 389에서 머피는 ‘병어리’를 “신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의를 시행하는 자들에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35) 필자는 레무엘이 역사상 존재하지 않은 문학적 인물(가령 ‘데오빌로’ - 참조. 눅 1:1-4)이란 가정 속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 이 논문을 읽은 어떤 익명의 심사자는 레무엘을 아라비아 반도의 맛사란 지역의 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아바리아 반도의 맛사란 나라의 왕이란 것도 한 가정에 불과하다. 필자는 레무엘 왕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지만, 눅 1:1-4에 나타나는 ‘데오빌로’처럼 ‘문학적인 표현 속에 나타나는 인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가정한다면 레무엘을 무리하게 이방인의 한 왕으로 치부하는 것보다 훨씬 타당하다고 본다.

의로운 재판'과 관련된 '정의'이다. 구약성경에서 재판은 왕의 중요한 책무이다.³⁶⁾ 왕은 재판을 통하여 정의를 이룰 것에 대한 요구를 국민으로부터 받는다(참조. 미 3:1, 9; 7:9).³⁷⁾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뜻을 성취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받고 있는 왕은 정의롭게 그리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선정을 베풀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자이다.

4. 왕의 '길'(דִּרְכּוֹ)과 '정의'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이며, 구원이고, 관심이고 사랑과 배려(참조. 사 40:10; 51:14; 46:12-13; 61:10)”이다.³⁸⁾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준엄한 심판(참조. 사 5:7-30)이며, 실천에 대한 요구”(참조. 사 1:17)이다.³⁹⁾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정의이다. 잠언 31:8-9에 나타나는 '정의'는 공의로운 통치가 세상에 이루어지길 원했던 구약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맥을 이어받고 있다(참조. 암 5:24).

잠언 31:8-9에 나타나는 '정의로운 재판'은 샌델(Michael J. Sandel)이 말하는 '정의'와 같은 맥락에 있다.⁴⁰⁾ 왕의 역할에서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은 정의로운 판결을 행하는 데 있다. 이 점에서 왕은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를 귀중하게 지켜 세상에 정의를 실현할 의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잠언 31:8-9에 나타난 정의는 샌델이 말하는 보편적인 정의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왕의 책무는 정의로운 판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베푸는 것이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역할을 행하는 데서 왕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다.

사무엘상 15:7-9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삼상 15:9)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의 행동을 불의하게 보셨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따를 때 정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인간의 행위

36) 왕과 재판에 관해서는 이동수, “미가서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 59를 보라.

37) 이것에 대하여 Ibid., 72-73을 보라.

38) 이것에 대해서는 Josef Scharbert, “Gerechtigkeit I: Altes Testament”, *TRE* 12 (1984), 408-410; 배재욱, “정의에 대한 그리스도론적인 고찰”, 『신학과 목회』41 (2014), 56을 참조하라.

39) Josef Scharbert, “Gerechtigkeit I: Altes Testament”, 405-408; 배재욱, “정의에 대한 그리스도론적인 고찰”, 56.

40)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 역 (과주: 김영사, 2010).

는 공동의 선을 성취하지 못하기에 섯델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가 아니다. 왕이 재판을 정의롭게 처리하지 못할 때 공동의 선을 지향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왕의 ‘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의가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재판은 먼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의를 성취하는 데 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왕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참조. 왕상 3:9). 정의롭지 못한 재판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정의는 평화를 선도하는 것이기에 정의가 없는 세상에 평화가 정착될 수 없다.⁴¹⁾ 레무엘의 잠언에 나타난 왕의 ‘길’(דָרֶךְ)로서의 ‘도리’(道理)는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할 ‘길’, 즉 ‘도리’이기도 하다.

5. 맺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그 지혜를 얻게 될 때 명철과 총명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잠언의 교훈에서 사람이 살아갈 생활의 지혜와 진정한 삶의 도리를 찾을 수 있다.

잠언 31장에 나타나는 잠언은 레무엘 왕을 가르친 그의 어머니의 교훈으로 1-29장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잠언과 30장에 나타나는 아굴의 잠언과 대조된다.⁴²⁾ 그렇지만 레무엘의 잠언은 내용적으로 다른 잠언에 나타나는 교훈이 말하는 바와 내용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

잠언 31:3-9에 나타나는 레무엘의 잠언은 금지 명령(3-7절)과 정의로운 재판에 대한 권고(8-9절)로 구분된다. 그런데 3절은 명확하게 금지 명령으로 나타나지만, 4-7절은 금지 명령투의 명령문이 아니라, 평서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장 구조 속에 금지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금지 명령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금지 명령이 지혜와 어떤 관련 속에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 금지 명령은 왕의 어머니가 아들인 왕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지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잠언의 지혜는 실천적인 규범으로서의 틀을 가지고 있다. 잠언에 나타나는

41) 정의에 대해서는 배재욱, “정의에 대한 그리스도론적인 고찰”, 39-59; 배재욱, “바울의 하나님의 의 개념”, 「장신논단」 32 (2008), 221-247; 배재욱, “쿰란 공동체의 의(義) 사상 연구”, 「신학사상」 129 (2005 여름), 91-121.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는 배재욱, “세상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평화’”, 「선교와 신학」 43 (2017), 241-270을 보라.

42) 어떤 논평자는 30장에 나타나는 아굴의 잠언과 연관시켜 레무엘을 ‘맛사’ 사람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필자의 생각에는 이런 주장도 성경적인 근거가 희박한 가설이라고 본다.

지혜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이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영혼과 생명에 직결된다.

거대하고 우주적인 담론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인간의 언행과 불순한 생각이 자신과 타자의 영혼을 해치고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아간다. 3-7절에서 레무엘의 어머니는 왕인 아들에게 부도덕과 정사를 게을리 하는 것과 폭음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런 경고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것에 대하여 교훈하는 잠언(참조. 잠 2:2; 4:23)에 나타나는 교훈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레무엘에게 왕의 ‘길’을 바르게 지킬 것을 교훈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일면은 사랑이지만 다른 일면은 ‘준엄한 심판’(참조. 사 5:7-30)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정의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때문이다. 잠언 31:8-9에서 왕은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요구 앞에 있다. 정의로운 재판을 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기능을 하는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왕에게 요구되는 정의는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왕의 ‘길’(דֶרֶךְ), 즉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세상에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치면 세상은 암흑천지가 된다. 정의가 사라지면 사랑을 외친다 해도 그것은 속임수이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 정의는 분명한 잣대가 필요하고 정확한 판단력이 요구된다. 그것과 아울러 정의는 동시에 ‘자비’이며 ‘은혜’이고 ‘구원’이고, 타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랑과 배려’(참조. 사 40:10; 51:14; 46:12-13; 61:10)이다.

<주제어>(Keywords)

레무엘(לֵמוּאֵל), 맛사(מַסָּא), 너의 길(들)(데라케카, דֶרֶךְ־ךָ), 정의로운 재판, 정의.

Lemuel(לֵמוּאֵל), Massa(מַסָּא), derakheeka(דֶרֶךְ־ךָ), trial for justice, justice.

(투고 일자: 2019년 1월 17일, 심사 일자: 2019년 2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19년 4월 23일)

<참고문헌>(References)

- 국어국문학회, 『(새로나온)국어대사전』, 서울: 民衆書館, 2001.
- 김기동, “에셋트 하일 : 유능한 여인!”, 『한국여성신학』 59 (2004), 60-70.
- 김유기, “잠언 31장 10절 <에셋트 하일>의 의미”, 『장신논단』 40 (2011), 119-141.
- 김정우, “잠언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기독교사상』 53:4 (2009), 22-32.
- 김희석, “잠언 31장 1-9절의 해석학적 기능 -르무엘 왕(잠31:1-9)과 현숙과 여인(잠31:10-31)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35 (2012), 232-260.
-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편, 『동아 새국어사전』, 제5판, 서울: 두산동아, 2004.
- 머피, 롤랜드 E, 『잠언』, 박문재 역, WBC 성경주석 22, 서울: 솔로몬, 2008.
- 민영진, “현숙(賢淑)한 아내냐, 유능(有能)한 아내냐: 잠언 31:10-31”, 『설교자를 위한 성경연구』 6:10 (2000), 42-59.
- 배재욱, “바울의 “하나님의 의” 개념”, 『장신논단』 32 (2008), 221-247.
- 배재욱, 『성경에서 배우는 최고의 지도력: 섬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 배재욱, ““세상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평화’”, 『선교와 신학』 43 (2017), 241-270.
- 배재욱, “신약성경이 말하는 혼인”, 『장신논단』 19 (2003), 423-446.
- 배재욱, “요한복음에 나오는 γύναι에 대한 소고: 예수는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을까?”, 『신약논단』 9:3 (2002), 779-786.
- 배재욱, “정의에 대한 그리스도론적인 고찰”, 『신학과 목회』 41 (2014), 39-59.
- 배재욱, “쿰란 공동체의 의(義) 사상 연구”, 『신학사상』 129 (2005 여름.), 91-121.
- 샌델, 마이클,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 역, 과주: 김영사, 2010.
- 이동수, “미가서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 『장신논단』 15 (1999), 56-73.
-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0.
- 한글학회, 『우리말 사전』, 서울: 어문각, 2008.
- Blenkinsopp, Joseph, “The Social Context of the ‘Outsider Woman’ in Proverbs 1-9”, *Biblica* 72 (1991), 457-473.
- Even-Shoshan, Abraham, ed., *A New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Using the Hebrew and Aramaic Text*, Jerusalem: Kiryat-Sefer, 1990.
- Gesenius, Heinrich Friedrich Wilhelm,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17. Aufl., Berlin, Heidelberg (u.a.): Springer, 1962.
- Mack, Burton L., *Wisdom and the Hebrew Epic: Ben Sira's Hymn in Praise of the*

- Fathe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85.
- Maier, Christl M., *Die "Fremde Frau" in Proverbien 1-9: Eine Exegetische und Sozialgeschichtliche Studie*, *Orbis biblicus et orientalis* 144,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 Malchow, Bruce V., *Social Justice in the Hebrew Bible*,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6.
- Scharbert, Josef, "Gerechtigkeit I: Altes Testament", *TRE* 12 (1984), 404-411.
- Schrenk, Gottlob, "δικαιοσύνη: B. Die Gerechtigkeit in LXX", *ThWNT* II (1935), 197-198.
- Scullion, J. J., "Righteousness (OT)", *ABD* V (1992), 724-736.
- Washington, Harold C., "The Strange Woman אִשָּׁה זָרָה/נִכְרִיָּה of Proverbs 1-9", T. C. Eskenazi and K. H. Richards, eds., *Second Temple Studies 2: Temple and Community in the Persian Period*, *JSOTSup* 175, Sheffield: JSOT Press, 1994.
- Wiebe, Matt, "The Wisdom in Proverbs: An Integrated Reading of the Book",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heffield, 1992.

<Abstract>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Proverbs 31:1-9:

Focusing on מַשָּׂא and דֶּרַךְ

Jae Woog Bae

(Yo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In this article, the writer has dealt with th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Proverbs 31:1-9, which is passed down in the name of ‘Lemuel’ as its author. The writer dealt with the translation of ‘Massa’ in Proverbs 31:1 and ‘derakheeka’(דֶּרַךְ) in verse 3, and sought to identify what the proverb writer would convey through Proverbs 31:1-9.

Proverbs 31:3-9 known as “The Way of the King” is revealed through a just trial. First, “wisdom appeared in the prohibition order” in vv. 3-7, and in vv. 8-9, “the counsel for justice” is present. Proverbs often warn about alcohol (cf. Pro. 20:1; 23:31-35). The mother of King Lemuel(לְמוּאֵל) enumerates the harmfulness of wine and warns her son about alcohol, relating the reason to the cause. Kings must pay attention to people in hardships, and exercise their duties properly. Since kings have a duty to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know the difficulties of the people and to serve them. In particular, there is a lesson about the need to identify with the needy who can be alienated from the trial (v. 8 and 9b).

In the Old Testament, God’s justice is the “grace of God” (cf. Isa. 40:10; 51:14; 46:12-13; 61:10) and also judgment (cf. Isa. 1:17). The mother of King Lemuel instructs her son to act in justice as a king on behalf of God. Justice needs to be practiced. The king’s rule should be justified through this trial. The king sets up a common good when he conducts a just trial.